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개혁 현황과 농업은행 개혁 지연

1. 주요 국유상업은행의 개혁 현황

□ 중국의 주요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개혁은 WTO 가입을 전후로 가속화됨.

- 중국정부는 1998년 2,700억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기존 4대 국유상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1998.8)

- 1999년에는 400억 위안을 투입하여 4개 금융자산관리공사(AMCs)를 설립하고 국유상업은행에서 총 1조 4천억 위안의 부실채권을 이전(1999.10)

- 2003년에는 별도로 국유은행에 대한 투자회사인 회금투자공사(汇金投资公司)를 설립하여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에 각각 225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2003.12), 공상은행에 150억 달러 투자(2005.4)

□ 특히 2004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3개 국유은행은 상당한 개혁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1) 기존 4대 국유은행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농업은행을 지칭하며, 2007년부터는 교통은행을 포함시켜 5대 국유은행 체제가 형성됨.

<표 1> 중국 주요 국유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현황

	투입 시기	투입 규모	부실채권 비율
중국은행	2003년 12월 31일	225억 달러	16.28%(2003년 말)→3.56(2007년 6월 말)
중국건설은행	2003년 12월 31일	225억 달러	4.27%(2003년 말)→2.95%(2007년 6월 말)
중국공상은행	2005년 4월 21일	150억 달러	24.24%(2003년 말)→3.29%(2007년 6월 말)

자료: 1) 금융계(金融界)(<http://bank.jrj.com.cn>)

2) 부실채권 비율은 각 은행 2006년 보고와 인민은행 참조

- 이들 3개 국유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진 이후 연달아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 8%의 요구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비율도 5% 이하로 크게 낮춤.

<표 2> 주요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시장 상장 현황

	증시 상장 시기	자본조달규모
건설은행	2005년 10월, 홍콩증시 상장	92억 달러
중국은행	2006년 6월, 홍콩증시 상장 2006년 7월, 상해증시 상장	112억 달러 25억 달러
공상은행	2006년 10월, 홍콩상해 동시상장	22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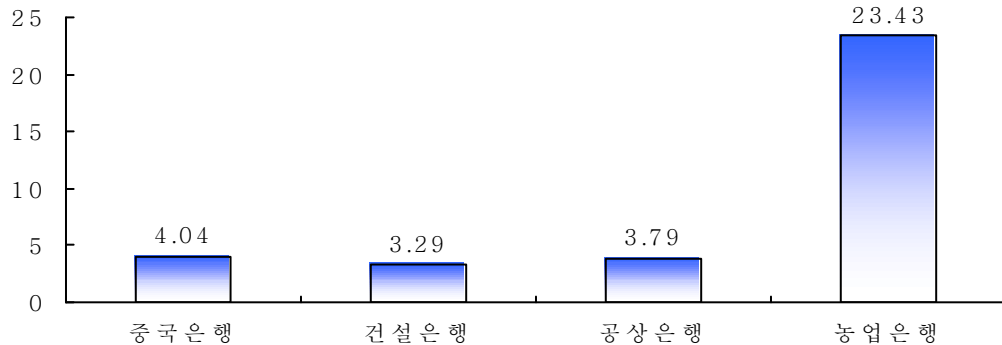
자료: 금융계(金融界)(<http://bank.jrj.com.cn>)

□ 4대 국유상업은행 중 농업은행의 개혁이 가장 미미한 수준임.

- 농업은행은 4대 국유은행 중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 4대 국유은행 각각의 2006년 보고에 따르면 부실채권의 경우, 2006년 말 기준 여타 3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모두 5% 이하로 크게 낮아졌으나 농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은 여전히 23.43%로 매우 높음.

<그림 1> 주요 국유은행 부실채권 비율(2006년 말 기준)

(%)



2. 농업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설

□ 최근 회금투자공사에서 농업은행에 400억 달러(역대 국유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중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확대되고 있음.

- 농업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설은 2007년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8월부터 주요 신문들이 관련 기사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 농업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존 4대 국유은행 가운데 마지막 은행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러나 회금투자공사의 농업은행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며, 농업은행의 개혁은 아직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적자금 투입 관련 소문에 대해 재정부와 회금공사에서는 농업은행의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며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음을 강조

□ 농업은행은 지난 2004년 국무원에 개혁방안을 제출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 새로운 개혁방안을 모색 중임.

- 기존 국유은행의 경우도 국무원이 개혁방안을 승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음.

3. 농업은행 개혁 지연의 원인

- 농업은행에 대한 개혁 지연 원인의 핵심은 삼농(三農: 농업, 농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윤의 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개혁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2007년 1월 국무원은 전국금융공작회의(全國金融工作會議)를 통해 농업은행 개혁 방침을 “삼농을 위한, 전반적인 개혁, 상업적 운영, 적기에 상장(面向“三農”, 整體改制, 商業運作, 擇機上市)”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 이 방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삼농을 위한” 영업 요구로, 농업은행은 정책성 은행과 상업성 은행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삼농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업무는 여타 업무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이윤 추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국무원의 발표 이후 당시 농업은행 부행장이었던 한중치(韓仲琦)는 “삼농(三農)을 위한” 운영과 “상업적 운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요구는 여타 국유은행 개혁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고충을 호소한 바 있음.
- 실제로 농업은행의 2004년 개혁안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것 역시 삼농 지원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 현재 농업은행은 삼농 지원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개혁 방안을 모색 중임.
- 전 중앙은행 부행장이었던 상준보(項俊波)는 농업은행 행장으로 취임하면서 “삼농(三農)을 위한 상업은행”으로서의 수립을 천명

- 그는 “삼농지원 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한 농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히며 삼농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
- 농업은행은 지난 8월 23일 “삼농을 위한 서비스 제고에 관한 결정(关于进一步做好向“三农”服务工作的决定)”을 통해 동부 연안의 주요 발전도시에서 고급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영업이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삼농의 발전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4. 중국 내 주요 반응

- 농업은행의 삼농 지원과 이윤 추구의 병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공존
- 업계 내 대다수 전문가들은 농업은행의 삼농 지원과 이윤 추구간의 모순은 쉽게 조화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
- 그러나 중앙은행 연구국(央行研究局) 자오진푸(焦瑾璞) 부국장과 아시아개발은행 탕민(汤敏) 이코노미스트 등은 삼농지원과 이윤추구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 자오진푸는 중앙은행에서 시범 실시한 농촌소액대출공사 7개 지점의 경우 아직까지 부실대출이 없으며, 평균이윤율이 20.08%에 달한다는 점을 예로 들어 삼농 지원 금융업무도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상준보는 삼농 관련 금융시장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행이 이를 적극 이용할 경우, 이윤 추구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이와 같은 논란이 상존하고 있으나 농업은행의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
- 중국은하(银河)증권의 위엔더쥘(苑得军)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농업은행 부실채권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책적 대출에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해결이 당연하며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중국재정대학의 은행업연구센터 귀토평(郭田勇) 주임 역시 농업은행의 개혁 성공여부는 전체 중국 금융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개혁안이 조기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

<참고자료>

《经济观察报》, “汇金计划400亿美元注资农行”, 2007.8.6

《经济观察报》, “国有银行第二轮改革开闸”, 2007.8.11

《财经》, “农行注资未有实质进展”, 2007.8.12

《中国经济时报》, “面向三农与商业化运作能否有机结合”, 2007.8.15

《经济日报》, “农行：面向三农提高服务质量提升服务水平”, 2007.8.29

中国经济网 (<http://finance.ce.cn>) , “央行定调大高分 银监会：农行股改注资金额不是问题”, 2007.9.1

금융계(金融界): <http://bank.jrj.com.cn>